

조선 왕조는 불교를 배척하지 않았다

新湖南誌

전라도 1000년 호남을 바로 세우자 <23>

제6부-사상·종교의 산실 호남

③조선시대 송유역불 이론 정당한가

이종수 순천대 교수

조선은 성리학을 통치이념으로 삼아 건국한 나라라고 할 수 있다. 신라와 고려가 불교 신앙에 기반하여 백성을 다스렸던 것과는 확연히 구분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조선 건국과 더불어 송유역불정책이 시행되어 1895년 승려의 도성출입이 허용될 때까지 지속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현재까지 견재한 전통사찰의 주요 건물은 대부분 조선시대에 건축된 것이며, 많은 불화나 불서들도 조선시대에 만들어져 전해지고 있다. 일반적인 이해처럼 지속적인 억불정책이 이어졌다면 어떻게 그 많은 문화재들이 전쟁이나 화재의 위험을 견뎌내고 오늘날까지 전해질 수 있었는지 의문을 가지 않을 수 없다.

‘송유역불정책(崇儒抑佛政策)’이라는 말을 분석해보면, 송유(崇儒)는 ‘유학을 숭상하다’는 의미이고, 억불(抑佛)은 ‘불교를 억압한다’는 뜻이며, 정책(政策)은 국가나 개인의 정치적 책략을 말한다. 이를 합하여 해석하면 ‘유학을 숭상하고 불교를 억압하는 국가나 개인의 정치적 책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알고 있는 한, ‘송유역불’이라는 용어는 근대학문으로 불교사를 연구하기 시작한 1910년대에 처음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1911~1912년에 걸쳐 후루타니 키요시(清谷隆)가 일본 발행의 ‘불교사학’에 연재한 ‘조선이조불교사개설(朝鮮李朝佛敎史概説)’이 그 효시이다. 이후로 이능화, 예다 토시오(江田俊雄), 권상조, 다카하시 토오루(高橋亨), 김영수 등에게 계승되어 조선시대 불교정책이 송유역불이라고 규정되었다.

그런데 이들은 조선시대 불교에 대한 면밀한 분석 끝에 송유역불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신라나 고려시대에 대한 상대적 의미에서 송유역불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불교가 공인되고 고려시대까지 숭불정책이었다고 할 만큼 불교는 전 국가적인 종교였다. 그러나 유학의 나라 조선이 건국되면서 국가적 신앙은 개인적 신앙으로 바뀌었고, 성리학자들에게는 한낱 미신적인 것으로서 개혁의 대상이었을 뿐이다.

왕조 중심으로 시대를 구분하는 한국역사의 특수성에 비추어 본다면 시대를 규정하는 패러다임으로서 조선시대를 송유역불이라고 보는 것이 마땅하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생겨난 폐해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흔히 학자조차 조선시대를 송유역불 시대였다고 규정하고 조선전기부터 지속된 송유역불정책으로 인해 조선불교는 연구할 가치가 없다고 무시하기도 한다. 또 1895년 일본 일련중 승려 사노젠레이(佐野前勲)의 견이에 의해 승려도성출입금지가 해제된 것을 송유역불정책의 종결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송유역불이라는 말이 학계와 사회에 정착하면서 조선시대 500년 동안 줄

‘송유역불’ 이론 탄생 배경

1910년대 日 잡지 ‘불교사학’ 연재 때 ‘조선왕조실록’ 보고 ‘송유역불’로 규정 학계·사회 정착... 불교 억압으로 이해

조선 후기 불교

부모도 없고 임금도 없는 ‘무부무군의 道’

국가 위기 때 국왕에 충성하는 승려 보고

승려 신분 보장... 불교에 호의적으로 변해

‘송유역불’ 이론 타당하지 않은 이유

조선말 승려 7천명 넘고 후기 불교 더 융성

전통사찰·불화 등 대부분 조선시대에 조성

‘왕조실록’에 불교 없다고 ‘억불 강화’는 잘못

곧 불교가 억압받은 것처럼 이해되어 왔다.

과연 이러한 인식은 정당한 것일까? 500년 동안의 억불정책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조선말기 승려 수가 7000명이나 상회하였던 것일까? 신라나 고려와 비교하지 않고 근대와 비교해서 조선 불교를 바라본다면 송유역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 90%를 상회했을 것으로 생각되는 조선시대 한자 문맹자들에게 불교신앙보다 성리학적 가치관이 더 중요하였을까?

일반적으로 억불이라는 용어 외에도 배불(排佛), 척불(斥佛), 벽불(闕佛)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조선왕조실록’에서는 벽불이라는 용어가 89회로 가장 많이 등장하고, 척불 27회, 배불 4회, 억불 1회 사용되었다. 이는 500년의 역사 기록에서 볼 때 그리 많이 사용된 용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물론 이 용어의 숫자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는 않는다. 조정의 대신들이 불교를 비판할 때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특정 용어를 가지고 재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선조를 기점으로 조선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사용된 용어를 보면, 조선후기에 벽불 2회, 척불 5회 등장하고, 억불과 배불은 사용된 예가 없다. 이는 조선전기와 후기를 송유역불이라는 동일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왕조 중심으로 역사를 바라본 한국사 인식의 관점에서 조선 불교는 전기와 후기를 구분하지 못한 채 연구되었다. 근대적 방식의 한국불교사 연구는 일본인에 의해 처음 시작되었고 정치사 연구의 기반 위에 이루어졌다. 그래서 대부분 ‘조선왕조실록’을 중심으로 불교 연구가 진행되었다. 조선전기 ‘왕조실록’에서는 대신들의 벽불상소(闕佛上疏)가 끊임없이 이어진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국왕은 오래된 전통이어서 일시에 혁거(革去)할 수 없다는 논리로 대응하며 교화(教



화)로 다스려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조선후기에는 벽불상소를 찾아보기 힘들다. 그래서 흔히 조선후기 불교는 이미 자생력을 잃고 거의 멸실되었다고 말한다. ‘조선왕조실록’에 불교와 관련한 내용이 등장하지 않고 더 이상의 벽불상소가 없는 것은 불교가 거의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해왔다.

하지만 오늘날 남아 있는 많은 불교 문화재는 조선전기에 비해 후기의 불교가 더욱 활발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조선후기에 수많은 사찰이 중건되고 불서(佛書)가 편찬되었으며, 강원에서는 한문 경전 강의가 이루어졌고 제자들은 돌아가신 스승의 문집을 편찬하였다. 서울과 경기도에서는 불교 활동이 다소 위축되었다고 하더라도 지방 불교는 견재하였다. 북쪽으로 묘향산, 동쪽으로 금강산과 오대산, 동남쪽으로 팔공산과 가야산, 남쪽으로 지리산과 두륜산 등지에서 불교는 번성하고 있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에서 의승병들이 보여준 활약으로 인해 유학자들은 불교를 새롭게 인식하였다. 부모도 없고 임금도 없는 무부무군(無父無君)의 도(道)라고 비판하였던 불교가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국왕에게 충성하는 모습을 지켜본 유학자들은 임진왜란이 지난 후 승군제도를 통해 승려의 신분을 보장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불교에 대해서도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 그 결과 조선 후기 ‘왕조실록’에서 불교에 관한 기사는 거의 등장하지 않게 되었다. 그런데 ‘왕조실록’에 기록이 없는 현상을 근대 불교사학자들은 조선후기에 불교활동이 거의 없었다고 진단하고 송유역불이 더욱 강화되었다고 결론 내렸던 것이다. 그러나 남아 있는 문화재와 문헌을 통해 우리는 그 주장의 허구성을 확신하게 된다.



-순천대 지리산권문화연구원 HK교수
-동국대 사학과 문학박사
-동국대 불교학술원 조교수
-경기도 문화재전문위원

※바로잡습니다
신호남지 ‘제5부-도전전신과 정의로 빛낸 역사’ 부문에 게재된 ⑤ 한말 의병 이끈 당대 최고의 학문 ‘노사학’(7월4일자)과 ⑥호남의 신종교, 격변의 시대에 등장하다(7월11자)의 기사를 ‘제6부-사상·종교의 산실 호남’ 부문 ①과 ②로 옮기니다.

전라도 들여다보기

담양과 대나무문화

김형주

담양은 백제시대에 추지해군(秋子海君)이었고, 통일신라 시기인 757년에는 추성군(秋成郡)으로 고쳐 불렀다. 백제 때 굴지현(屈支縣)이었던 장평면 지역은 신라에 편입되면서 기양현(祈陽縣)으로 개칭되었다. 고려시대인 995년 담주(潭州)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담양(潭陽)으로 고쳐져 나주의 속현이 되었다. 조선초기 1413년 담양도호부로 승격된 후 몇 차례의 강등과 승격을 거듭하였으며, 1895년 23부제 실시로 남원부(南原府)에 속하였다. 1914년 전국적인 행정구역 개편으로 장평군이 폐지되어 통합되었고, 광주군 대치면·갈천면(대천면의 전신)이 편입되었다.

오늘날 담양은 광주생활권의 핵심적인 관광위락지역으로서 전국적으로 자연생태관광지로 각광을 받는 명소로 발돋움하고 있다. 대도시 권역에서 죽녹원과 인근의 관방제 및 매타 가로수길이 복합되어 천혜의 관광지로 성장하였는데, 관광발전의 배경에는 대나무자원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대나무는 화분과(禾本科·벼과)의 다년생 초본난대식물로 지구상에 120속 1300여 종이 분포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중부이남 지역에 왕대, 솜대(분죽), 맹종죽, 조릿대 등 4속 14종이 자생하고 있다. 왕대와 솜대는 주로 공예품재료로 쓰이고, 맹종죽으로는 죽순을 생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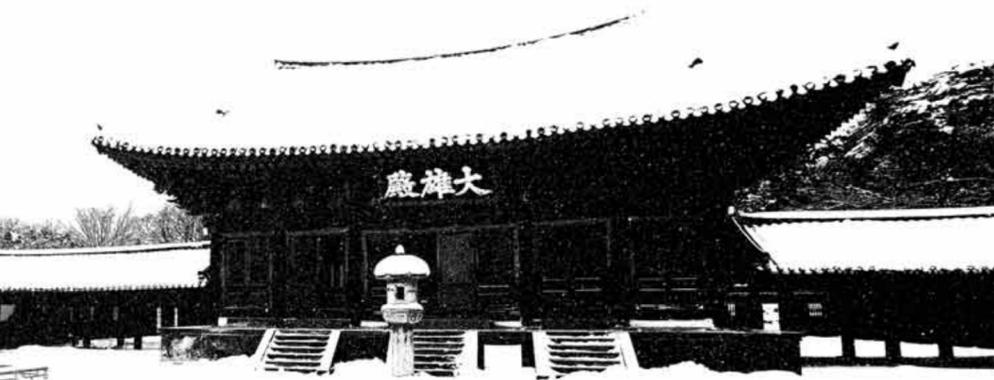
대나무는 삼국시대를 전후로 한 시기부터 화살의 재료나 죽창 등 무기용으로 사용되어오다가,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생활문화의 발달로 다양한 집기의 수요가 발생하였던 조선시대에 접어들어 공예재료로 본격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사실 1980년대까지도 대나무는 죽세공예품의 원료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대나무는 주로 소쿠리, 삿갓, 키, 대나무발(죽림), 잠뭇 등을 만드는 죽세공예품의 원료로 쓰였다.

죽세공에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바구니, 채반, 부채, 채상 등 각종 기물을 만드는 죽물공예를 비롯해 죽순껍질(竹皮)로 방석이나 3합 상자 등을 만드는 죽피공예, 대나무의 표면에 달구어진 인두로 그림을 그리는 낙죽(烙竹)공예 등 크게 3종류로 나눌 수 있다. 죽공예 장인으로 참빗장, 채상장, 죽림장, 낙죽장 등이 있다.

오늘날 바구니, 광주리, 석작 등 전통적인 세간살이의 수요는 급감하고, 대나무자리, 자동차용 방석, 찻상, 바둑판 등 현대적 생활용품들이 인기가 높다. 그러나 죽공예품은 실생활용품보다는 다양한 장식용품으로 이동하는 추세를 보여주며, 대나무는 공예품 이외의 용도로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대나무 숲을 휴식과 재충전의 공간으로 만들고, 용기에 쌀·밤·대추를 넣고 찌서 대나무의 그윽한 향취를 맛보는 대통밥, 식용·미용재료로 이용되는 대나무의 진액인 죽력 등이 대표적이다.

우리 죽세공예품은 생활문화의 서구화와 값싼 외국산 제품에 밀려 사양산업의 국면에 접어들었다. 울긋불긋 기상과 꺾이지 않는 굳은 절개를 상징하는 대나무는 이제 기능성과 신산업화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시점이다.

<광주시립민속박물관 학예실장>



내 집같은 편안함.
고객님의 여행과 휴식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건강한 우리 음식 한정식
30년 전통의 한정식,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 정식

알찬 행사를 위한 연회장!
세미나를 위한 영상 시설이 갖춰진 중·소규모의 연회장